

연구소 소식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 토론회 및 연수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6일(수) 오후 1시에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11년도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방안 연구(II): 취약계층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연구책임자: 장명림 선임연구위원)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



난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장명림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강현옥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프로젝트조정자, 전연진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관계자 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현장 보급 연수도 함께 이루어졌다.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보건복지부 주최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각 영역별 개정 내용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좌장), 꽈혜경 한중대학교 교수, 김영명 마포구립서강어린이집 원장, 김온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장,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손승희 대전청사새봄어린이집 원장, 이상우 나래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하였다.

당일 공청회장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접수하여 보건복지부 주철 사무관 및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6개 영역별 연구자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영역별 대표로는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총괄 및 기본생활), 이미정 여주대학 교수(신체운동), 서소정 경희대학교 교수(사회관계),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의사소통), 최혜영 창원대학교 교수(예술경험), 김선영 명지대학교 교수(자연탐구)가 참여하였으며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2011년도 제2차 육아지원정책포럼 개최

제2차 육아지원정책포럼이 4월 21일(목) 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치원 종일제와 관련된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김은설 연구위원이 '서울시 에듀케어 운영', 김은영 부연구위원이 '유치원 종일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고문영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참석하여 종일제 및 에듀케어의 개념, 인력 및 시설설비 운영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011년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및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정례회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4월 26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영유아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2011년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유정은 한국청소년인권센터장,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가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토론자로 도미향 남서울대 교수(좌장), 김경희 아동권리학회장, 박진재 푸른보육경영 이사, 유혜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포럼에 앞서서는 육아정책연구소 산학연 협력기구인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의 2011년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2012년 연구과제 선정 및 하반기 포럼주제 등 당면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 개최

4월 29일(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1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책임자인 이정립 부연구위원이 2차년도(2010)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토론은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의 진행 아래 나종혜 한남대학교 교수,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경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영환 전북대학교 교수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시범연구사업 정책세미나 개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시범연구사업(연구책임자: 문무경) 수행의 일환으로 5월 11일(수)에는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영차 프로젝트의 성과와 사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부산지역 영차프로젝트의 개요, 추진과정 및 성과에 관하여 문무경 선임연구위원과 황해익 부산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어서, 부산지역 영차프로젝트 시범사업의 성과 및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는 임재택 부산대학교 교수,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 서혜영 부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장, 부예숙 부산시 보육시설연합회장이 참석하였다.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실태 조사

문무경 선임연구원과 장혜진 부연구위원은 4월 5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재외동포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양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의 한글학교와 유치원 등을 방문하고 관련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